

# ‘지자체 금고 유치’ 지역은행 지역 사회공헌 반영해야

### 금고 선정에 출연금 큰 변수...시중은행 자금력 앞세워 유치 광주은행, 남구 국민은행에 뺏겨...선정 기준 변화 필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방은행을 위한 금고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은행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 제1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준에 남구는 광주은행이, 광산구는 농협이 제1금고를 맡아왔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 1988년 당시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된 뒤 30년 만에 처음으로 농협이 금고를 놓치게 됐다.

농협은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1금고를 비롯해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의 1금고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구를 시중은행에 뺏기게 돼 자치구 5곳 가운데 2개를 시중은행에 잃어버렸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광주·전남 지자체의 금고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은행의 지역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광주은행은 현재 광주·전남지역 28개 지자체 중 22곳의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 1금고와 전남도 2금고를 비롯해 광주 동구·서구·북구의 1금고를 맡고 있다. 전남에서는 18개 시·군의 2금고 16곳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1금고로 지정된 목포를 제외한 전남지역 21개 시·군의 1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다.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으로 크게 나뉜다.

다만 항목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고 경쟁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이다.

시금고 선정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지방은행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도 이에 편승해 협력사업비와 예금금리를 요청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광산구 1금고 경쟁전과 남구 1금고 선정에서도 출연금이 금고를 결정지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 35억원, 협력사업비 29억4000만원 등 총 64억4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기부하고 예금금리도 2.12%를 제시했다. 농협은 이보다 훨씬 적은 출연금과 낮은 예금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도 국민은행은 광주은행이 제시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출연금과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신용등급은 지방은행 규모의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과도한 점수차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울산의 경우 일정등급 이상(투자적격)인 경우에는 만점처리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은 지자체들이 관내지점 뿐 아니라 전국 영업점 수를 반영하고 있어 지방은행이 지역에 점포수가 훨씬 많음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자체 금고선정 경쟁전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최근 은행권 비대면 업무강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공무원 급여이체 등 부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여기에 금고 운영실적을 쌓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의 금고를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돼 앞으로 경쟁은 더 과열될 전망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보다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7년 말 기준 11조9295억원으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96%에 달해 중소기업 상공인을 위한 향토은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가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금융계 관계자는 "광주은행의 경우 지역 공공기관에서 조달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인재 채용과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도 평가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기준과 규모에 대한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과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도 평가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기준과 규모에 대한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DN 빛가람 힐링 콘서트 한전KDN(시장 박성철)은 지난 29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한전KDN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임직원과 가족들을 포함해 주변 입주기업,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현우 마술사가 강연자로 나서 '꿈과 희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한전KDN 제공>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함께하는 달빛동맹 다섯번째 이야기

DAEGU

GWANGJU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8. 11. 16 FRI — 11. 17 SAT  
대구광역시 일원

11월 16일(금)	Part1. 달빛소통	14:00~16:00	탐방프로그램 (김광석길, 방천시장 등)
	Part2. 달빛나눔	17:00~21:00	개막식 / 멘토특강 / 달빛콘서트
11월 17일(토)	Part3. 달빛기쁨	09:00~14:00	투어프로그램 (대구 중구 근대로 골목 등)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조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8. 11. 13(화)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숙박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수산물 값 절반은 유통비

### 총 6단계 유통과정·산지 로컬푸드형 직매장도 부족

수산물 가격의 절반을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어업인들의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가 많은 4대 주요 수산물의 유통비 비중이 지난해 평균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품목별 생산에서 계통출하량 가치를 적용한 수치로, 명태(냉동)가 66.3%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어(선어) 56.7%, 오징어(선어) 45.9%, 갈치(선어) 44.7% 순이었다.

수산물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6단계의 유통경

로와 단계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산자에서 위판장(경매), 산지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경매), 소비지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까지 거치는 복잡한 구조다.

특히, 수협에서 운영하는 산지 로컬푸드형 직매장도 부족하다. 바다마트는 2016년 17개에서 지난해 15개로 줄어들었고, 실적이 저조한 온라인 직거래 등이 수협의 대표적 판매경로에 불과하다.

또 기존 수산물 유통단계는 6단계에서 4단계로 유통단계축소를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도 5개소 건립했지만 보관물류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세관, 납세오류정보 휴대전화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는 11월 1일부터 관세신고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오류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안내사항을 종이에 출력해 송부했으나, 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전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안내는 납세신고 오류 뿐 아니라 광주본부

세관 통관내역을 분석해 수입물품 및 업체 사업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제도 등도 포함돼 있다.

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족세액을 추가 납부해도 가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보정기간 종료 2개월 전 휴대전화 안내를 통해 기업의 자율신고를 유도해 가산세 면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 lion@

## 코스피 추락에 한숨 쉬는 개미들

광주 직장인들 업무중에도 지수 확인...울며 겨자먹기식 버티기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주식투자자나 샀던 지역 직장인들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30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장보다 10.10포인트(0.51%) 내린 1985.95로 개장해 장중 연저점을 찍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직장인 김모(42)씨의 안색이 급격히 굳어졌다.

김씨는 "월급의 일부를 모아 용돈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부인 모르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다"며 "수백만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탓에 광주지역 사무실 곳곳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주식 시황을 보기 위해 업무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가 하면, 곳곳에서는 한숨을 내쉬는 등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이날 코스피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2010선을 회복했지만 손해를 만회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관된 분위기다.

올해초까지 가장화해 열풍이 불며 투자에 나선다가 실패한 뒤 주식시장으로 갈아탄 20~30대 초보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존버(버티기)'에 몰렸다. 매수했을 때 가격만큼 회복할 때까지 팔지 못하고 버티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다수 20~30대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해 하락한 주식을 추가 매수해 평균 단가를 낮춰 손해를 만회하는 이른바 '물타기'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현재 주식을 팔면 손해가 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며 말이 묶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64포인트(0.93%) 오른 2014.69로 마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4.69 (+18.64)	↑ 금리(국고채 3년) 1.93 (+0.04)
↑ 코스닥 644.14 (+14.44)	↓ 환율(USD) 1139.20 (-2.20)